

“폭염, 특별재난에 준해... 전기료 배려 검토를”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정부·지자체가 특별재난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 있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과도기 고통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기 회하는 폭염과 그에 따른 누진제 폐지 요구와 관련,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에 따르면 이 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텔일급 분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

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임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해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0.7%) 감소했고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커졌다”며 “내외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의 고통도 크다. 이를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로 시행 1개월을 맞은 주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정책과 관련해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되는데,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만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최저임금의 명압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받기는 분이 적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내각을 독려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변화는 수용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말하는 신호등 확대 설치

전주시, 이달 중순까지

전주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나오는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 개선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순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총 5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서학동 거산환공아파트 부근을 비롯한 전주지역 30개 교차로에 음향신호기 61대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으며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딩동댕 000’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와 같은 안내멘트가 나와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에 도움을 주는 기기이다. /송효철 기자



“척추수술 실패 책임” 전북대 병원 앞 1인 시위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모씨가 ‘전북대 병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오씨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4개월 동안 허리 척추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지만 통증이 악화됐고 무성(무의의)한 주치의 태도에 대해 화가 난다며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오씨는 “이번 사건을 문제삼아 오진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2차례 MRI 결과 통증 유발 병소를 발견할 수 없었고 환자가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 마음은 아프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내년 녹색자금지원 공모 대응

전북도, 산림기술사 등 구성 평가단서 타당성 검토

전북도는 사회적 경제제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과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원의 2019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모사업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 2개 분야, 총 사업비 138억원 규모로 지난 7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전주시 등 6개 시군에서 9건(24억원 규모)이 접수됐다.

도는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서 산림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단에서 사업별 계획, 예산규모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산림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수익 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산림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 기능 증진자금이다.

전북도는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총 89개소에 총사업비 206억원이 선정되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과 쉼터 및 교목약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을 조성했다.

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산림복지진흥원의 9월 평가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평가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현장설명 등으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익산시, 2018 전국·장애인체전 상반기 홍보 우수부서 시상

2018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인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2018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 및 시상했다.

홍보 최우수부서에는 예술의전당이 선정되었으며 우수부서는 영동 2동, 장려부서는 모현동이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예술의전당은 모든 공연 시 제작하는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에 체전 홍보 마스코트 등을 삽입하여 제작 배포하였고, 공연 시작 전에는 체전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수부서와 장려부서로 선정된 영동2동과 모현동은 전국체전의 날인 12일에 관내 대형마트와 함께 대규모 거리 홍보를 실시하였고 체전 홍보용 조끼를 제작하여 모든 행사 시 착용하고 체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수부서 평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전부 80개 부서가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양대체전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하반기 평가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종료되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모든 부서가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체전 붐조성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군산, 완주 등 전라북도내 14개시·군에서 분산하여 개최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시, 일반음식점 13개 업소 ‘안심음식점’ 지정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이 식품위생사고 걱정과 음식 재사용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시장실에서 주

방 내부 모습을 CCTV 등으로 공개해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온 일반음식점 13개 업소를 안심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안

심음식점은 주방의 조리과정과 주방의 위생 상태 등을 손님들이 객석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과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번 추가 선정으로 안심음식점은 기존 42개소에서 총 55개소로 늘어났다. /송효철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18-1587호

도로구역결정및사업인정을 위한 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역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자 및 주민,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어양 아랫 부평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치: 전북 익산시 어양동278-91번지-부송동528-3번지
 -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0.815km, B=8.0m(2차로)
 - 사업시행자: 익산시청
 - 사업기간: 2018.02 ~ 2020.12
2. 결정사유
 - 익산시 어양동, 영동동, 부송동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노후가 협소하고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하는 등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어 능개선이 필요하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시도(3호 하나로(6차선)와 부송 지역에 위치한 시도(7호 부송선(6차선)을 연결하는 본 노선을 시도1268호로 지정 고 시하고 도로구역결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2018.07.30 ~ 2018.08.14(14일간)
 - 장소: 익산시청 건설과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건설과 도시시설계장(063-859-5913), 주무관(063-859-5534)에게 문의하시면 성실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